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281

JCCT 2021-11-34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 Adolescents' Ego-Resilience

윤선미*, 남상문**

Yun Seon Mi*, Nam Sang Moon**

요약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자신 이해는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감정통제, 활력성, 대인관계, 낙관성, 호기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문화예술교육 효과 중 정서적 안정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계발을 위하여 더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향을 타인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자신감을 가지며 안정되고 성숙한 생활의 넓은 영역에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자아탄력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Abstract Adolescence is a period when ego resilience, the ability to overcome stress, is important because self-identity is not establish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has various effects on the ego resilience of adolescents, so school culture arts education and social culture arts education us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adolescents. Self-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control, vit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ptimism, and curiosity of adolescent ego resilienc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motional stability among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of adolescent ego resil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areer exploration as a more practical program for adolescence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develop themselves. In addi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convergence research that enables youths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have high self-confidence, and play a role in a wide range of stable and mature lives.

Key words : Culture and Arts Education, Adolescents, Ego-Resilienc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정희원,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희원,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9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8일

Received: September 29, 2021 / Revised: September 10, 2021
Accepted: October 18, 2021

*Corresponding Author: smyun7@hanmail.net
Dept. of Culture and Arts, Graduate School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Korea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존재로서 문화적인 소양과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인성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를 거치며 어려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아온 시기이며 자아개념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학생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culture)와 예술(arts) 그리고 교육(education)의 융합의 관점에서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우고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교 정규교육과 방과 후 교육 등을 말하며,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다른 사회영역인 학원, 문화센터, 청소년 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업을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넓어진 생각과 감수성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 사회성, 문화적 소양 등을 기르게 한다.[2]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고 정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학문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행복감, 소속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자신 이해[3]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행복감

행복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 등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하며 자기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 의미를 내포하는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면에서의 감정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학업과 또래 관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한다. 또한, 이 교육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만족감과 즐거움 행복감을 제공한다.[4]

청소년의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 관한 관심이 그들의 행복보다는 학업 성취에 관점을 두고 있다.[5]

특히 학업적 성과에 치중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청소년의 행복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활력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며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2) 소속감

소속감은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마음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 집단과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Maslow는 소속감을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이며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인식되고자 하는 욕구라 하였다. 인간은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6] 인간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고독감,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소속감은 개인이 타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오는 만족감으로 청소년들이 속한 집단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기본 욕구로 작용한다.

청소년은 여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소속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에 참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준다.

3) 정서적 안정

정서적 안정은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이해하고 표현하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쉽게 흥분하고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미한다.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청소년은 심리적 긴장, 신경과민, 불행감, 무가치감이 나타난다.[7]

청소년들은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을 학업 성취나 사회적, 심리적 측면 등에서 경험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서를 빠르게 지각하는 사람이 정서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자신의 정서를 원활하게 잘 표현하여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8]

청소년기는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때이고 자기 능력과 장애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육에 참여하게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전환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4) 자신 이해

자신 이해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세이다. 또한 자아 탐색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가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합리적이고 적당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신 이해는 자기 긍정과 자기수용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한다. 이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 성장하게 하여 자아 성찰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9]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감과 의지를 발달시키려고 한다.

자신 이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역으로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제하며 관리, 조절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다.[10]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거치며 예민해져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을 보다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꿈이나 미래 등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이나 변화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개인의 불행한 사건과 위협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변화의 과정이다.[11]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긍정적이고 친근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을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고난과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견디어내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전의 자아 통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민감성과 협동성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12]

청소년들은 자기 삶을 자신 있게 잘 헤쳐 나가도록 성공의 키워드로 자존감과도 관련이 깊은 자아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양되는 능력으로 세부 요인을 감정통제, 활력성, 대인관계, 낙관성, 호기심 [13]으로 구분하였다.

1) 감정통제

감정통제는 개인의 부정적이고 높은 정서 표현으로부터 조절력을 제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감정상의 충동과 긴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절 능력이다. 감정통제 능력은 감정을 조절하며 고통이나 피로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14]

감정통제는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한다. 그리고 감정통제는 자신 혼자뿐 아니라 타인과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15]

청소년들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충실하면 긍정적인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원천이 된다. 청소년들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인내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등은 감정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활력성

활력성은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서 우울함보다 즐거움이 많으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활동적이고 환기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활력성은 신체활동이나 비경쟁적인 활동을 통해 증진되며 긍정적인 사회성을 형성하고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16]

활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정열적이며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그들은 많은 기회를 찾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로 스스로가 항상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까지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17]

청소년들이 활력성이 향상되면 가정과 학교, 사회가 보다 활기있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울할 때보다 즐거울 때가 많을 때,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청소년이 활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친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타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타인의 감정과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또래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게 되며 다양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얻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만남의 증가와 다양성으로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19]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고 성공을 부르는 요인으로 청소년기에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낙관성

낙관성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려는 자세로 무슨 일이든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0] 청소년들에게 낙관성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사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우울증세를 완화시키고, 자아정체감을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안한 정서를 극복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능력과 학업 수행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삶 속에서의 사소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비판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낙관성이 키워진다면 전반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양호하게 된다. 따라서 낙관적인 청소년들은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실패하여도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5) 호기심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자극에 대하여 사람들의 탐구적인 행동을 촉진하도록 돕는 동기를 뜻한다. 인간은 삶에서 탐구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호기심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게 한다. 그리고 호기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그리고 종족들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며 진화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1]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서 그 대상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들은 자발적, 수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학습 과정이 호기심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호기심은 아이들의 놀이와 학교 활동에서 핵심 개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탐색행동이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청소년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22]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증대되면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밝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은 새로운 물건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고 하며,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가보지 않은 곳도 혼자서 잘 다니는 경향이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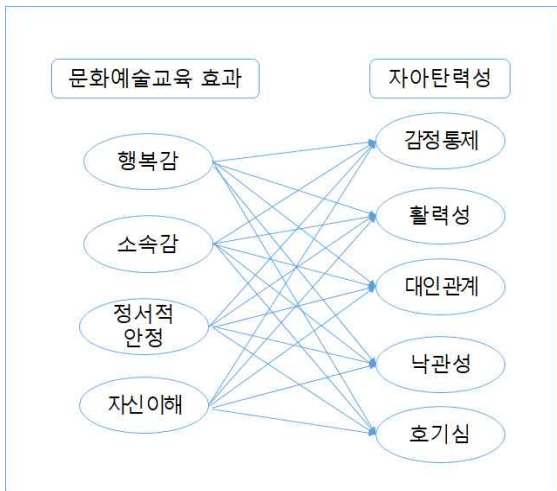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감정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활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낙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학생 250명에게 2021년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구분	항목	빈도	백분비
문화예술교육 수강기관 (다중응답)	학교정규교육	230	100%
	방과 후 학교	104	45.4%
	사교육	94	41.0%
	사회문화예술교육시설	62	27.1%
문화예술교육 수강기간 (학교정규교육 제외)	없음	40	17.4%
	1년 미만	49	21.3%
	1년-3년 미만	70	30.4%
	3년-5년 미만	49	21.3%
	5년-7년 미만	16	7.0%
	7년-9년 미만	4	1.7%
문화예술교육 수강분야 (학교정규교육 제외, 다중응답)	음악(국악을 제외한 음악)	126	54.8%
	연극	23	10.0%
	미술	117	50.9%
	무용	28	12.2%
	문학	29	12.6%
	국악	13	5.7%
	뮤지컬	19	8.3%
	없음	40	17.4%
성별	남자	115	50.0%
	여자	115	50.0%
학년 (중학교)	1학년	73	31.7%
	2학년	77	33.5%
	3학년	80	34.8%
지역	수도권	123	53.5%
	비수도권	107	46.5%
합계		230	100.0%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23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변수의 타당성 분석

1) 독립변수의 개념 타당도 분석

문화예술교육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수들에 관한 개념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들의 항목에 대하여는 척도 간 상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인 항목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사이에 판별 타당성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개념 타당도 분석(독립변수)
Table 2. Concept validity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변수 문항		성분			
		1	2	3	4
행복감	1	.853			
행복감	3	.806			
행복감	2	.762			
행복감	4	.694			
정서적 안정	8		.560		
정서적 안정	9		.669		
정서적 안정	11		.512		
정서적 안정	10		.475		
소속감	7			.413	
소속감	5			.820	
소속감	6			.712	
자신 이해	12				.750
자신 이해	14				.678
자신 이해	13				.777
고유값		3.618	2.938	2.296	1.258
설명량		25.845	20.986	16.400	8.983
누적설명량		25.845	46.832	63.232	72.215

*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1841,005, df=91, sig=.000***, *** p<0.001

2) 종속변수의 개념 타당도 분석

자아탄력성 검사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수들에 대한 개념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항목에 대하여는 척도 간 상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되

었다.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사이에 판별 타당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개념 타당도 분석(종속변수)
Table 3. Concept validity Analysis (Dependent variable)

변수 문항		성분				
		1	2	3	4	5
낙관성	17	.709				
낙관성	18	.630				
낙관성	19	.562				
낙관성	16	.413				
감정통제	4		.741			
감정통제	5		.681			
감정통제	2		.681			
감정통제	1		.650			
감정통제	3		.401			
대인관계	15			.760		
대인관계	13			.714		
대인관계	11			.587		
대인관계	14			.583		
대인관계	12			.574		
활력성	8				.434	
활력성	10				.613	
활력성	9				.415	
활력성	6				.479	
활력성	7				.460	
호기심	20					.535
호기심	22					.471
호기심	21					.465
호기심	23					.442
고유값		7.338	1.807	1.528	1.256	1.004
설명량		14.008	13.796	13.102	9.061	6.263
누적설명량		14.008	27.804	40.906	49.967	56.230

*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87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1917.705, df=253, sig=.000***, *** p<0.001

4. 개념 신뢰도 분석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거나 비교가능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반복하여 측정할 때 같거나 비슷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지, 측정항목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 측정에 있어 측정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이다. 따라서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인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개념 신뢰도
 Table 4. Concept Reliability

변수	Cronbach's α	항목 수
행복감	.883	4
소속감	.783	3
정서적 안정	.789	4
자신 이해	.796	3
문화예술교육	.887	14
감정통제	.695	5
활력성	.764	5
대인관계	.611	5
낙관성	.744	4
호기심	.652	4
자아탄력성	.859	23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611~.887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분석 결과

본 논문의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2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석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개념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 직각 회전 방식의 요인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개념의 신뢰도를 검정은 크론바하 알파테스트(Cronbach alpha 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요인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관계 등의 분석을 위하여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중 공선성 분석은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고 VIF(분산팽창인자)에서도 1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 Adolescents' Ego-Resilience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표준 오차			
(상수)	1.782	.181		9.867	0.000
행복감	.251	.078	.294	3.218	.001**
소속감	.220	.081	.259	2.715	.007**
정서적 안정	-.279	.097	-.315	-2.881	.004**
자신 이해	.159	.070	.202	2.281	.024*
종속변수 : 감정통제, $R^2=.182$, $F=12.535$, $p=.000***$					
(상수)	1.594	.199		8.015	0.000
행복감	.205	.086	.220	2.392	.018*
소속감	.104	.089	.112	1.165	.245
정서적 안정	-.093	.107	-.096	-0.868	.386
자신 이해	.194	.077	.227	2.537	.012*
종속변수 : 활력성, $R^2=.166$, $F=11.187$, $p=.000***$					
(상수)	2.264	.152		14.851	0.000
행복감	.163	.066	.234	2.486	.014*
소속감	.109	.068	.157	1.598	.111
정서적 안정	-.158	.082	-.217	-1.927	.055
자신 이해	.134	.059	.209	2.287	.023*
종속변수 : 대인관계, $R^2=.128$, $F=8.259$, $p=.000***$					
(상수)	1.988	.167		11.877	0.000
행복감	.029	.072	.037	0.401	.689
소속감	.130	.075	.166	1.731	.085
정서적 안정	.035	.090	.043	0.395	.693
자신 이해	.157	.064	.218	2.434	.016*
종속변수 : 낙관성, $R^2=.170$, $F=11.488$, $p=.000***$					
(상수)	1.786	.191		9.349	0.000
행복감	.048	.082	.054	0.586	.559
소속감	.175	.086	.199	2.047	.042*
정서적 안정	-.062	.103	-.067	-0.605	.546
자신 이해	.198	.074	.243	2.692	.008**
종속변수 : 호기심, $R^2=.152$, $F=10.116$, $p=.000***$					

*** $p < 0.001$, ** $p < 0.01$, * $p < 0.05$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한 결과 하위변수 모두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감정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감($\beta=.294$, $p<.01$), 소속감($\beta=.259$, $p<.01$), 자신이해($\beta=.202$, $p<.05$)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정서가 변화하여 청소년 특성이 반영되어 정서적 안정이 기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감($\beta=.220, p<.05$), 자신이해($\beta=.227, p<.05$)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여기서 그러나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이 기각된 것은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수준의 교육을 많이 경험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회가 미미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감($\beta=.234, p<.05$), 자신이해($\beta=.209, p<.05$)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여기서 그러나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이 기각된 것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대인관계보다 자신의 취향에 의존하고 정서적 안정이 정착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신이해($\beta=.218, p<.05$)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여기서 행복감, 소속감,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기각된 것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현 상황의 적응이 우선순위에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교육 하위요인이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은 소속감($\beta=.199, p<.05$), 자신이해($\beta=.243, p<.01$)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여기서 행복감, 정서적 안정이 기각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은 정규교과 과목에 비추어 호기심을 느낄 만한 활동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감정통제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 오케스트라, 합창, 미술과 음악, 무용 등의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체험하여 정서적 안정이 선행되는 교수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활력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 만족을 느끼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회복은 행복감과 자신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에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취향에서 벗어나고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관계형성 교수학습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낙관성은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공유적 성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협의체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모둠 교육이나 단체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소속감과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자신 이해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감정통제, 활력성, 대인관계, 낙관성, 호기심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정서적 안정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서적 안정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계발을 위해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등을 잘 이겨내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과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향을 타인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자신감을 가지며 안정되고 성숙한 생활의 넓은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hung Kyoung Eun·Lim Young Sik·Shin Hye Sun·Cho Young Mi, "A Survey on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for yout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69, 2018.
- [2] Song Mi Young·Nam Sang Moon, "A Study on the convergence learning guidance Method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applying the Eurhythmic rhythm el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3), 375, 2021, Doi:<http://dx.doi.org/10.17703/JCCT2021.7.3.375-378>.
- [3] Chung Kyoung Eun·Lim Young Sik·Cho Young Mi, "The Differences of Youth's Experiences and Effects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 a comparison between student and out of school youth," *Youth Culture Forum* 58, 127, 2019.
- [4][11] Stinson, S. W., "A question of fun: Adolescent engagement in dance education," *Dance Research Journal*, 29(2), 49-69, 1997.
- [5][16][18] Lee In Soo· Kim Hye Young, "Effects of Best Health Dance on the Vitality and Learning Concentr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Holistic Education Academy*, 10-12, 2018.
- [6][19] Wang Young Su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olescents' Belongingness and Maladapta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11-21, 2000.
- [7] Park Chan E, "Effects of Tea Culture Experience Program on Teenager's Emotional Stability and Self-Efficacy : Mainly Focused on High School Girls," Ph.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2010.
- [8] Kim Ji Y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Orchestra Activity and Emotional S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15-17, 2017.
- [9] Yoon Hye Mi, "The Application of Self-understanding Creative Drama Program for Improving Adolescent'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 Focused on the Emotional Regulation, Self-esteem, Empathic Abili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20, 2016.
- [10][21] Jang So Yo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llingness to risk taking, curiosity,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resilienc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13-14, 2018.
- [12] Kim Kyeong Su,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Ego-Resilience of Youths in Multi-Cultural Families," Ph.D.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15, 2015.
- [13] Back Soon Hee,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amily Strength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on the Readiness of their Independent Living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Ph.D.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Graduate School, 58, 2017.
- [14] Lee Sook Young, "The Effects of Family-Environ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13, 2010.
- [15] Jung Eun Jee "A Study of Effects of Group Counseling for Emotion Control on Maladaptive Thoughts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2014.
- [17] Lee Jae Duc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Vitality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Vitality-Type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0-12, 2012.
- [20] Kim Jung Soo, "The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rollability Perception of Risk Situations: The Roles of Stress Coping and Benefit-finding as Mediato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10, 2008.
- [22] Kim S Hyuen, "The Effect of Work-Related Curiosity on Job Craf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3, 2020.